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복음-사도행전 10 회차, 마살, 약속된 구원자,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로버트 A. 피터슨(Robert A. Peterson) 박사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0입니다. 나, 하워드 마살, 약속된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왕국.

누가복음과 신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저와 함께 기도해주세요. 아버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누가복음의 가르침에 관해 하워드 마살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Hans Konzelman은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종말론적인 시대로 보는 바울과 대조적으로 누가는 구원의 시대를 이제 끝났고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오심은 끝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진술을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에서 누가가 예수 시대와 현재 시대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언급은 Conzelmann이 그것에 부과하려고 하는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사역의 기간과 예수님의 수난으로 시작된 기간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그 주된 언급은 겐세마네의 장면을 포함하여 바로 뒤따르는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35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돈도 배낭도 신도 없이 너희를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라 배낭도 그리하고 칼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는 나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충분한가? 그러나 주된 언급은 겐세마네의 장면을 포함하여 바로 뒤따르는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해와 고난이 가까웠다는 경고입니다. 본문에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성취와 구원의 현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종류의 현재 사이를 구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취의 시대가 끝났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새로운 기간 동안에는 예언의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범죄자와 함께 여김을 받았나니 이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음이라. 따라서 이 구절은 지금까지 Conzelmann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는 Conzelmann의 주장에 반대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사역 이후의 기간을 성취의 범주에 두기 때문이다. 그 요점은 누가복음 24장 46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부활 후 사명이 성경의 성취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확증됩니다. 콘젤만의 실수는 그가 보기에 누가가 탈 종말론적으로 설명한 예수의 사역 과 미래의 마지막 때를 구별했다는 것이다.

누가는 마지막 때를 확장하여 예수의 사역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때를 포함하고 파루시아에서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 합니다. 누가는 종말을 먼 미래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후 구원의 시대 전체를 포함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셨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예수님의 사역에 속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성취의 오늘은 교회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둘째, 성취의 때는 구원의 오류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택하신 긍정적인 견해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인용문에서 생략된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파루시아를 언급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용문의 문구에서 드러납니다.

위에서 언급한 누가복음 7:22의 인용문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구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후자의 구절은 오로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예수의 강력한 사역과 설교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즉 불행한 계층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하시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묻는다.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방금 읽은 그 구절은 복음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 실제로 행하신 행동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분은 소경에게 시력을 주셨고, 저는 사람을 고치셨으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머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예언이 원래 설교의 효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그러한 이해 단계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가설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능력 있는 일과 전파하는 일은 모두 예언의 성취로 간주됩니다.

인용문의 다양한 부분이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결합된 방식은 사역 자체가 구약 본문의 선택을 지시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역에 대한 설명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역에 대한 설명이 예언의 표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언의 거의 모든 측면을 예시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루크 자체에서. 그리고 모든 경우에 복음 전통의 다양한 흐름에서 더 많은 증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하셨다는 전승이 옳다면, 인용문의 사용이 그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한 그 자신의 평가로 되돌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예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합의를 뒤집으려는 피터 스톨마허 (Peter Stuhlmacher)의 시도는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사역을 묘사하면서 전통적인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아마도 예수에게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의 절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설교의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파토코이 (Patokoi)라는 용어가 산상수훈의 첫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과 마태복음 5장 3절과 평행하게 나오는 구절에서 특히 E. 퍼시(E. Percy)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큰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가리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행하는 착취에 무력했기 때문에 억압받는다는 뉘앙스를 띠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돕는 자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약함과 야훼에 대한 의존의 개념을 결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E. 퍼시(Percy)는 그 단어가 경건함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견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소 과장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요점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계획된 경건한 행동의 긍정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고통받는 사람의 궁핍한

상태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조력자들에 의해 부족한 것이 공급되지 않는 궁핍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분명히 밝혔듯이, 이 단어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가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3.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곳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앙겔리스마이.

여기서 다시 우리는 상당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온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개념의 의미와 기원 모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이 어근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용법을 고려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내용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계시록 14장 6절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바로 머리 위로 날아가더라. 그리고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6, 7). 피터 스투 마허(Peter Stuhlmacher)의 증거에 대한 새로운 조사는 좋은 소식의 의미가 뿌리에 단단하게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히브리어 동등어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사는 다소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에 관해서는 헬레니즘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은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사용과 유사하지만 Stuhlmacher는 유대인의 영향이 일차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요한계시록 14, 6장의 용법이 전통적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약에서 가장 원시적인 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천사가 선포하는 선포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굴욕과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왕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Stuhlmacher가 누가복음 7:22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동사의 종말론적 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입니다. Stuhlmacher의 설명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신약성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강력하게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할 바 없이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도움이 되는 그리스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둘째,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주요 출처는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에서는 이 단어가 특히 좋은 소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9:41, 27:52, 7, 61:1. 소식과 관련된 기쁨의 표시는 동사 자체보다는 문맥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 동사를 좋은 소식과 연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발견되는 기쁨의 긍정적인 표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Stuhlmacher보다 더 긍정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Stuhlmacher는 많은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의 동일한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설교하다 동사 kerusso와 병행하여 사용되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Stuhlmacher의 목표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다는 기술적 의미가 이 구절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한, 이 진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동사가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 않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기쁨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는 누가복음 1장 19절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19. 저는 가브리엘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는 말씀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희에게 말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것은 나에게 좋은 소식처럼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게 ESV가 그 단어를 번역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ESV 위원회는 확실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는 좋은 뉴스 품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장 10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이시라 하였느니라. 게다가 누가복음 4:18에서 이 용어의 기본 의미가 확립되면 다음 구절에서도 같은 의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등등을 전파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다음 구절들, 특히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명명된 구절들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3장 18절인데, 세례 요한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많은 권고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Conzelmann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보다 일반적인 근거에서 이미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 역사에 대한 누가의 체계와 모순되고 동시에 목적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반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는 자신이 메시아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설교의 일반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때인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권고였습니다(눅 3:4~6). 인도자.

콘젤만(Conzelmann)의 견해와 다르며, 동시에 누가는 실제로 요한이 전파하는 좋은 소식의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7장 22절에 사용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이 예수님의 시대가 구원의 시대임을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술이 복음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더 명확한 설명을 받기 전에, 특히 누가복음 4장, 18장 이하에서 나오는 세 번째 사실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성취와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좋은 소식 등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을 예언의 성취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에 약속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전파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인용문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시력을 가져다 주는 그의 설교의 효과를 은유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왔다고 선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예수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 전체는 구원이 실제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관한 것임을 올바르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라는 인물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인용된 구절은 선지자가 직접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종말론적 선지자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인물을 해석하기 위해 선지자라는 범주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 것은 그 개념이 그 구절에 존재한다는 어느 정도 추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두 번 언급합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선지자의 운명에 비유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예수가 여기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명시적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속담을 사용하여 그의 믿음을 선지자의 믿음, 즉 그의 운명과 비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3:33에 있는 독립적인 말과 형태가 실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판결입니다. 더욱이 그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속담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하신 새로운 창조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Q 자료에는 예수를 선지자로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특별한 자료에서 나인의 군중은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나인의 무리는 예수에 대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눅 7:16).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의 투시 능력이 부족하여 선지자라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눅 7:39).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33절은 예수님의 운명을 예루살렘에서 살해된 선지자의 운명에 비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의견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눅 24:19). 예수에 대한 그러한 견해가 초대 교회에도 계속되었고 누가 자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3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볼 수 있으며 요한 기독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활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거기에서 말과 행위에 대한 언급은 선지자의 활동이 입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의 환상적 경험, 사람의 생각에 대한 초자연적 지식, 예지력과 같은 특징은 모두 이 패턴에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18장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관점에서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로 간주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묘사한 것은 이것을 암시할 수 있지만, 이것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암시되는지는 의심스럽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관한 한 이 설명은 그럴듯하다. 여기에서 의의 교사에 대한 언급을 취하는 것이 옳다면 이사야의 콤란 찬송가에서 동일한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증을 받습니다.

Stuhlmacher는 예수를 종말론적 선지자로 묘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발견되며, 여기서 예수는 종말의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분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눅 7:19, 20). 이 문구가 종말론적 선지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전자의 견해에 찬성하여, 누가복음 7:22에 묘사된 행위는 친절한 메시아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 시대의 낙원 상태를 회복한 선지자의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요한의 설교에서, 요한이 자신을 종말론적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종말론적 선지자의 오심을 선포한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실 분은 메시아와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증거는 오심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메시아에 대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의 예언적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종말론적 선지자 개념에 숨어 있는 혼란을 밝히는 데 있다.

사실 여기서 두 가지 전통의 흐름이 풀릴 수 있는데, 이는 엘리야의 재림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긴장은 초대교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여겨졌으나 그 자신은 겸손하게 거절하고 그 역할을 부인했지만 새로운 모세는 아니었다.

예수의 행동 중 일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형론으로 이해되었지만, 그분 자신은 엘리야와 동일시되지 않고 새로운 모세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일반적으로 메시아와 동일시되지 않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적 용어로 종말론적 구원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장부터 21장에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것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행 7:35~37. 그렇다면 메시아의 임무는 메시아, 곧 모자이크 선지자의 역할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들이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논의하면서 종말론적 선지자와 메시아의 행위를 구별해 왔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종말론적 선지자로서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앞서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자가 종으로 간주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앞서 제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의 임무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모세의 임무를 반복하는 것이며 예언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한 광야 시대의 상황을 회복시키며, 눈먼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는다.

초대 교회는 메시아의 종, 종과 메시아 사이의 동일시를 하였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 동일시가 이미 예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와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2절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모세와 같은 종말론적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의 활동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종. 누가복음 4:18과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7, 19부터 22까지, 이것은 마살이 도달한 약간의 결론입니다. 7:19-22,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시각 장애인은 시력을 얻고, 절름발이는 걷는 등의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다시 연습하시며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이어서 내가 방금 암시한 구절, 즉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종말론적 선지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활동을 고난을 받고 죽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이해하셨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종 개념의 영향력은 이보다 더 넓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활동은 종의 활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17, 12, 17-21이 올바르게 인식되었습니다. 우리의 토론에서 우리는 누가가 물려받은 전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누가는 예수를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요 종이요 메시아로 보는 관점을 취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예수의 인격에 부여된 의미이며,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메시지는 예수 자신의 인격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호칭이 예수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복음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반면, 이와 관련된 활동은 분명히 존재하며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힌트가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가 구세주의 오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심을 분명히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세 공관 복음서 모두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전도자들은 예수의 설교가 주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마가복음에 담긴 예수의 설교 요약에 갖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일반적인 진술은 그가 이 관점을 공유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의 제시에서는 왕국 주제를 좋은 소식 선포의 주제에 종속시켰지만 왕국은 여전히 좋은 소식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개념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간략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용어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 성구에서는 예수께서 왕국의 끝과 명백한 도래가 임박했다고 여기셨음을 보여 줍니다. 또

다른 일련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성취의 때로 보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본문들은 왕국이 예수의 사역 중에 이미 도래했음을 암시하며, 예수께서 이 양극성을 설명하려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왕국의 현존과 미래의 도래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Conzelmann은 왕국 주제에 대한 누가의 취급이 왕국을 전적으로 미래적이고 또한 임박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누가가 전통을 수정하여 그 개념이 다른 복음서의 개념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와의 접촉이 끊어지고 먼 미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견해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콘젤만(Conzelmann)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관한 가르침을 정당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들이 전하는 말에 동의하므로 우리는 왕국이 현재의 실체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증거는 충분히 명확합니다.

설명하기에는 어색한 당혹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성취의 때인 현재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예수의 말씀과 그가 영을 통한 하나님의 현재 활동의 표징으로 간주한 행위와 연관되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왕국이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왕국의 존재는 전통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젤만은 누가에게 현재에 속한 것은 왕국 자체가 아니라 오직 왕국의 메시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메시지와 왕국이 모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콘젤만(Conzelmann)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왕국 본문에 대한 이러한 조사로부터, 누가복음의 제시는 왕국의 존재와 탁월성이 모두 확인되었던 초기 전승의 제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왕국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누가의 생각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22장 29, 30절, 누가복음 23장 42. 누가복음은 왕국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파를 통해 왕국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강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전통에서 발견되는 왕국의 탁월성에 대한 사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강한 반대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또 다른 종말론적 가르침은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사건들이 무한한 미래로 밀려났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왕국의 도래에 대한 전통적인 용어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그 개념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러한 반대는 상황이 과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누가가 21장에서 자료를 지시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전히 종말론적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종말과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황폐하게 하는 신성모독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우주적 징조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일이 뒤따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패턴이 유지됩니다. 구약성서의 언어 색상이 더 뚜렷하여 성취의 의미를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처럼 파루시아의 우주적 표징이 뒤따릅니다.

두 복음서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모든 일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타락은 파루시아로 이어지는 역사적 발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가 여기서 마가를 역사화하고 있지 않다고 올바르게 주장하는 E. 얼 엘리스(E. Earl Ellis)가 입증한 것처럼 이미 마가의 경우입니다.

파루시아 이전의 간격에 대한 루칸 스트레스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9절의 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누가복음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마가복음 13:7). 그리고 변화는 단순히

문체적입니다. 이방인의 수수께끼의 시대에 대한 언급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누가는 마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엘리스는 마가복음 13장 10절과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나오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이며, 이 문구는 여러 생애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청중들에게 그들이 마지막 세대의 일부이며 따라서 종말론적 사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은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한 세대의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크는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도래(마가복음 13:36)에 있는데, 이 요점은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여전히 적용됩니다(마가복음 13:37). 사실, 마가는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끝이 오기 전에 간격이 있다는 사실, 즉 끝이 즉각적이 아니라 임박했다는 사실은 끝이 제자들에게 관련성을 잃을 정도로 먼 미래로 연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는 종말과 관련된 축복과 화가 예수 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많은 말을 보존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수훈(눅 6:20-26)과 장차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말씀(눅 9:26, 12:8, 9, 40절)에서 팔복과 화를 간략히 언급할 수 있다., 누가복음 18:8, 미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누가복음 11 :29~32, 왕국에 들어가고 제외되는 것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3:25 및 30, 14:14, 15~24, 16:9, 그리고 18, 24.

따라서 종말은 현재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 권고는 파루시아의 지연으로 인한 공동체 형성의 지연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종말 이전에 시간을 예상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인자가 올 것이라는 희망에 비추어 그들의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하늘의 축복에 대한 희망이나 장래의 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거나 끝이 임박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약의 윤리를 움직이는 것은 위기의 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섹션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는 왕국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사역에서 왕국이 현실로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 신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도행전의 신학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A. 피터슨(Robert A. Peterson) 박사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0입니다. 나, 하워드 마샬, 약속된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왕국.